

[백세인생]

퇴직후 장백산기슭에서 창업한 90세의 ‘발전왕’

—안도현 첫 민영발전소의 주인 정대원로인을 만나보다



정대원로인이 대천하발전소의 발전 정황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 기자 일행이 수소문 끝에 찾아간 안도현 이도백하진에 위치한 대천하(大泉河)발전소의 하천 상류에서 백발이 성성한 한 로인이 전문인군과 함께 몸소 발전시설을 정비하고 있었다.

연변 단오절 씨름경기의 협찬자, 알고보니 90세의 ‘발전왕’

백발이 성성하지만 기품이 넘치는 이 로인은 바로 지난 5월 31일, 중국조선족민속원에서 개최된 ‘2025년 단오절 연변주민족식씨름경기’에 5만원을 후원하여 좌중을 놀래운 장본인인 90세 고령의 정대원로인이다.

시상식에서 “이분이 바로 선수들 상금으로 5만원을 협찬해주신 정대원로인”이라는 씨름경기 조직자중 한명인 연변성주체육운동학교 리설봉 교장의 소개에 이어 한복차림을 한 백발의 건장한 로인이 87키로그람이상 경기 우승자 유택군선수에게 전통씨름의 정신을 상징하는 황소 고삐를 넘겼다. 삽시간에 현장의 관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경의를 표했으며 로인의 선행에 탄복함과 아울러 이 로인의 신분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대원로인의 신분은 바로 개혁개방의 물결을 타고 30여년전에 장백산기슭의 안도현 첫 민영발전소인 대천하발전소를 창설한 주인공이다.

정대원로인이 창설한 대천하발전소는 매일 1만키로와트시(1만도)의 전기를 생산하여 국가전력망에 판매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 발전소가 정대원이 퇴직을 앞두고 독자적으로 창업했다는 사실이다.

1970년 상급부문에서는 안도현 만보향공청단위원회 서기직을 맡고 있던 35살의 정대원에게 명월진부장부부장, 현장정대(挖井队) 당지부 서기, 건설중인 내두발전공장 돌격조 책임자 차출(抽调) 직 등 3가지 직무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정대원은 “위치가 편벽하여 자식들의 학습에 영향이 있다.”는 안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전성이 강한 내두발전공장을 골랐다. 그는 젊은 노동자들을 이끌고 불과 3년 만에 발전공장을 일떠세우는 동안 전기 ‘문화인’으로부터 전문가로 급성장했다.

발전공장 종업원들의 소득 증가 위해 공동 창업 제안

정대원은 비록 차출직이었지만 날마다 필기장을 들고 다니며 꾸준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모두의 인정을 받아 발전공장이 사용에 교부되자 부공장장으로 승진하여 공장의 업무를 주관하기 시작했다.

당시 내두발전공장은 위치가 편벽한 데다가 다른 대형 단위들처럼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노동자들은 현성에 있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야만 했고 어린아이들은 부모들과 떨어져있어야만 했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몫을 안되는 로임으로는 자식들 공부 뒤바라지도 힘들었다. 하여 노동자들의 적극성이 강하지 않았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학교가 있는 단위로 전근하려는 노동자가 대반이었다.

몇년 만에 공장장으로 승진한 정

2선에 물러난 후 개혁개방 물결 타고 민영발전소 창업

기회는 1987년에 찾아왔다. 그해에 정대원은 내두발전공장의 경영 제1선에서 물러나 고문직을 맡게 되었다.

같은 해, 안도현당위에서 소집한 개혁개방 정책 전달 회의에 참가한 정대원은 현당위 주요 책임자가 한 “당과 정부는 일부분 지역과 일부분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지지한다. 공산당원들은 반드시 사상을 해방하고 앞장서서 부유해져야 한다.”는 연설을 들은 후 십여년간 가슴속에 묻어왔던 대천하수력발전소 건설의 꿈을 실현할 때가 되었을

를 마치기까지 5년 1개월 남짓한 동안 정대원과 부인 김금순은 천방백계로 100여만원의 천문학적인 대부금과 민간대출을 받아서 일반 사람은 상상도 못할 고생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발전소의 정상 운영을 이끌어냈다. 그들은 7년후인 1999년 9월에 2기 공사까지 준공시키면서 발전소는 현재의 발전량 규모에 이르렀다.

네 자식에게 달마다 용돈 주는 90세의 부친

연길최씨정공병원의 최종하 원장은 정대원로인의 만사위 최갑기와 60여년째 절친으로 로인과 알고 지낸 지도 수십년이 된다. 지난 단오절 씨름대회에 대원로인의 협찬을 주선해나선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개혁개방 초기에 남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민영발전소를 세울 생각을 다 하시고 30여년째 국가에 끊임없이 전기를 제공하신 정대원로인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90세의 부친이 계신다는 사실도 누구나 부러워할 일인데 네 자식에게 달마다 용돈을 주신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라고 말한다.

정대원로인은 “유산의 형식이 아닌 내가 살아있을 때 달마다 용돈으로 자식들에게 건네주고 싶었다.”며 몇년전부터 2남 2녀, 네 자식에게 달마다 5천원씩 용돈을 주고 있다. 네 자식은 전부 전력계통에 근무하는, 사회에서 알아주는 엘리트들로서 생활이 유족한 편이지만 자식들을 향한 부친의 내리사랑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정대원로인은 마계표류 경영권과 원래 경영하던 민박 경영권을 임대주고 현재 막내아들 정철룡, 허춘화 내외의 도움으로 민박과 조선족 음



리설봉 교장이 단오 씨름경기 장면이 담긴 사진을 정대원로인에게 증정하고 있다.

대원은 종업원들의 로임을 2급 인상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업으로 업여시간에 종업원들을 이끌고 장백산에서 뜰은 잣을 팔면서 그들의 소득을 제고시켜주었다. 비록 현농전국으로부터 행정경고 처분까지 받았지만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는 1년 사시절 열지 않는 장백산기슭의 10여갈래 하천의 락차를 리용해 민영발전소를 건설하여 그 수입으로 수입 증대를 도모하자고 노동자들에게 제안했다.

상급부문에 <대천하 소형 수력발전소를 개발할 데 관한 청시보고>를 제기했지만 “무모한 짓이다”, “기상천외한 일이다!”라는 답북을 받았고 종업원들도 적극 나서주지 않았다.

을 직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수리국으로부터 “수리자원은 국가 소유이고 발전소 건설은 자체건설, 자체관리, 자체사유를 실행하며 소유권은 투자건설자에게 속한다.”는 내용의 서류까지 받아온 정대원은 바야흐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다.

1987년 7월에 마계(魔界) 풍경구 동쪽에 위치한 대천하의 샘물을 리용한 대천하발전소 건설의 첫 삽을 떠서부터 1992년 9월 1기 공사

식정도 경영하고 있다.

올봄, 로인의 90세 생일선물로 네 자식은 발전소 울안의 대천하변에 조립식 방을 몇채 지어드려 부친의 민박업 규모를 넓히도록 했다.

90세 정대원로인의 경영 스토리는 마계풍경구의 산속에서 수많은 지인들의 부러움 속에 30여년째 씩씩하게 이어지고 있다.

/유경봉기자



“부끄럼 없는 삶으로 답하리라!”



8월 10일, 제 41 번째 로인절을 맞아 연길로인회봉반 회원들은 훈춘시항미원조렬사자녀협회를 찾아 뜻 깊은 만남을 가졌다.

이날 두 지역 로인들은 한자리에 모여 선별들이 피와 목숨으로 지켜낸 이 땅에서의 소중한 삶을 되새기며 당과 정부의 따뜻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렸다. 또한 사회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나눔과 기여의 정신을 실천해온 이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했다.

행사장에서는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네>, <중국인민지원군군가>, <그대들은 생각해보았는가> 등 노래들이 이어지며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두 지역 로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추억

을 남겼으며 신나게 춤추며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훈춘시항미원조렬사자녀협회의 87세 최정금회원은 “혁명렬사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라고 말했다. 83세 김옥자회원은 “행복한 오늘을 있게 해준 선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후대에 홍색유전자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라고 밝혔다.

이날 연길로인회봉반에서는 렬사 추모 행사에 보태라며 훈춘시항미원조렬사자녀협회에 위문금을 전달했다. 두 지역 로인들은 로인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뜨거운 애국심과 화합을 다지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박철원특약기자



연길, 무형문화유산 전승인과 함께하는 로인절



12일, 8.15 로인절을 맞아 연길시 신항가두로인협회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바로 연변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와 연변혁신경영자애심협회, 총동문회 5기 회원 등 애심인사들이 로인협회를 방문해 로인절 맞이 위문행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이날, 연길시청향관 총경리 리숙이 무침류와 비빔밥 등 건강음식의 조리법을 시연하고 나서 로인들에게 직접 맛보게 했다. 리숙은 민속전통 음식 분야에서 수십년간 명성을 쌓아온 전승인이자 연변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5기 회장이다. 리숙은 미리 준비한 전통 인강자만두와 랭면, 궁국수 등 푸짐한 선물세트 로인들에게 전례드려 큰 감동을 주었다.

이날 연길시 신항가두 민평사회구역과 민하사회구역 로인협회 회원들은 직접 준비한 무용과 독창, 소화창 등 문예종목을 선보이며 로인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신항가두로인협회 책임자는 “동문회의 지속적인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무형문화유산은 선조들의 장인정신이 담긴 소중한 유산으로서 대대로 이어져야 할 전통”이라고 말했다.

“로인절을 맞아 전국의 조선족 로인들에게 명절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로 사회구역에 대한 사랑과 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이다.”라고 연변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관계자는 전했다.

/오건기자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고령 로인 체중 월 2회, 키 1년 1회 측정 권장

8월 12일 소식에 따르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고령 로인 체질량지수 측정 범위 및 체중 관리 기준>을 발표하여 고령 로인의 BMI(체질량지수) 측정 범위를 22.0~26.9 키로그램 / 평방미터로 명확히 하고 고령 로인은 매년 최소 한번 키를 측정하고 월 최소 두번 체중을 측정할 것을 권장했다.

기준은 고령 로인을 실제 나이가 8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기준은 고령 로인의 개별 BMI가 적절한 범위내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건강 이상 발생을 예방하고 관련 질병 및 그 합병증 발생을 줄이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관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준은 다음과 같이 권의했다. BMI가 적절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령 로인의 경우, 체중 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장기적인 건강관리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고령 로인은 자가관리나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받아 가정 관리

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BMI 변화를 동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기적으로 의료위생기관이나 의료 및 영양 결합 서비스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에 참여하고 건강 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기준에 따르면 고령 로인은 적어도 1년에 한번 키를 측정하고 적어도 한달에 두번 체중을 측정해야 한다. 최근 3개월 동안 체중 변화가 5%를 초과할 경우, 질병의 진행을 배제한다는 전제하에 체중 측정 빈도를 높이고 이를 장기적 건강 관리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체중 측정은 고령자의 식사, 옷차림, 배변 등 생활습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측정 시간을 최대한 고정해야 한다. 체중을 측정할 수 없는 고령자의 경우, 간접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시점에서 팔 둘레, 종아리 둘레, 옷의 여유 정도 등의 지표 변화를 통해 체중 변동 상황을 료해할 수 있다.

/인민넷 - 조문판